

하구둑에 가로막힌 ‘어부의 꿈’ 갯벌과 함께 사라지다

사라지는 전남 **리아스식 해안**

〈3〉 영산강과 바다의 생이별

목포 바닷물, 영산포 지나 송정리까지 거침없이 흘러 깨끗한 물에 농어·송어·복어...강변 갯벌엔 쟁둥어 가득 하구둑 생기고 간척지 사업...농·어민 삶은 더 궁핍해져

이대형(76)씨는 영산강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어부다.

어부 경력과 순수성으로 치면 “대학 교수는 물론 다른 어부도 영산강에 대해 서 만큼은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그의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10대 시절부터 70대에 이르는 현재까지 그는 오로지 강에 터잡아 삶을 꾸려왔다. 영산강 하구둑이 생기기 전엔 해수면 어업권자에서 이후엔 내수면 어업권자로 바뀌었을 뿐 농사는 짓지 않고 강에서 잡은 고기로 두 아이들을 키워냈다.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에서 나고 자란 그는 1950년대 후반부터 마을 어른들을 따라 고기를 잡았다.

집과는 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 영산강에선 송어, 장어, 민어, 복어, 황실이, 농어, 웅어가 마르지 않고 나왔다.

강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700~800m 폭에 오전에 그물을 놓아 해질 무렵 거두면 5t트럭에 가득 채울 만큼 고기가 쏟아졌다. 그는 이씨의 설명이다.

고기가 어찌나 많이 잡히던지 인부 1~2명을 데리고 조그만 통통배에 올라 그물을 거두면, 금세 배 안 가득 고기가 차서 트럭에 옮겨 싣기를 3~4차례나 한 뒤에야 그물을 모조리 거둘 수 있었다고 회상하는 그의 얼굴은 미소가 피어 올랐다.

붕어와 잉어도 터러 잡혔고 강 옆 갯벌에서는 쟁둥어, 게, 갯지렁이도 잡았다. 그중에서도 송어와 복어, 쟁둥어는 씨알이나 맛 모두 일품이었다.

만조 때면 목포 앞바다에서부터 밀려드는 바닷물은 영산강 중류인 나주 동강 앞을 지난 영산포까지는 무난히 올라갔다. 바다 수위가 높아지는 사리 때면 송정리까지도 바닷물이 거침없이 올라왔다. 민물과 바닷물이 수시로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은 어장이 형성됐고 바닷물이 지나간 자리는 갯벌이 깔도 없이 형성됐다. 지금의 나주 동강 농협이 내놓는 ‘동강 간척지 쌀’도 이곳 갯벌을 농지로 바꿔 생산해낸 쌀이다.

영산강은 지난 1981년을 기점으로 바닷고기를 주지 않았다.

영산강 하구(목포·영암)에 제방을 쌓은 뒤부터 바닷물의 왕래가 끊겨 더는 바닷

■ 영산강 하구둑 위치도



고기가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 주변 갯벌은 농토와 갈대 숲으로 변했다.

이씨는 “대학 교수들, 학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찾아와 이리저리 질문을 하고 함께 고깃배를 타고 강을 답사한 뒤엔 어김없이 토목공사가 시작됐다”면서 “영산강 하구둑을 건설해 농지가 늘고 쌀 생산량도 덩달아 늘었지만 내 주변 농부들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구둑이 바다와 강을 단절시켰지만 그나마 잉어, 붕어, 장어 등 민물고기가 남아 있어 생계를 꾸려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4대 강을 한다며 강을 파헤치고 영산강에 승촌보와 죽산보를 건설한 이후부터는 아예 고기가 씨가 말라버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영산강 두 구간에 보가 건설되면서 강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이 악화하면서 물고기조차 제대로 살 수 없는 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고인 물이 썩지 않고 맑기를 바라는 게 바보 같은 짓인 줄은 어부인 나도 아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강을 파헤치구 흐르지 못하게 독을 쌓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어 “어부인 내가 잘 살고 내 고향 전남이 잘 살려면 영산강을 바다와 만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이 바다로 흘러 깨끗해지면 물고기가 남쳐나고,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들고 식당, 숙박업소, 찻집, 유원지가 강변을 따라 쪽 늘어서 전남이 훨씬 살기 좋아질 거라는 게 그의 믿음이다.

전남대 전승수 교수(지구환경과학부·퇴직학 전공)도 10여년 전부터 영산강 어부 이씨의 주장과 비슷한 의견을 내었다.



옛 영산포나루터 풍경.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제공〉



24일 나주시 영산강에서 이대형씨가 “하구둑이 생기기 전에는 저 갈대밭도 갯벌이었고 온갖 바닷고기가 넘쳐나 모든 게 풍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1년 목포시 옥암동과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사이의 영산강 하구를 가로막고 쌓은 영산강하구둑 전경. 농업용수와 농지 확보를 통한 식량 증산 등을 목표로 건설된 하구둑은 그러나 영산강과 바다를 단절시켜 수질 악화, 어족자원 훼손, 갯벌 매립 등 직·간접적 부작용을 불러왔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 교수는 “간척지 조성·농업용수 확보 등을 위해 영산강 하구에 쌓은 독(길이 4351m) 하나가 그 길이와 이로움의 크기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 리아스식 해안(바닷물이 유입되는 영산강 해안과 갯벌로 목포~나주 영산포)을 없애버렸다”면서 “1차적으로 하구둑 수문을 열어 강과 바다가 조금이라도 만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영산강 하구둑을 허무는 것을 전남을 위한 미래 전략으로 삼고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 클·사진=김형호기자 khh@/나주=손영철기자 ycson@kwangju.co.kr

전남미래 위해 영산강 하구둑 허물어야

바닷물 유입되면 수질 개선

영산강하구둑은 허물어질 수 있을까. 강물과 바닷물은 막힘없이 서로 만날 수 있을까.

한국농어촌공사와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에 따르면 목포시 옥암동과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사이의 영산강 하구를 가로막은 방조제인 영산강하구둑은 지난 1981년 완공됐다. 국내 최초의 하구둑으로 길이는 4351m, 높이 20m다.

영산강지구 종합개발계획 제2단계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독에는 8개의 배수갑문이 설치됐다.

당시 정부는 하구둑 건설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영산호 하구 일대의 207km²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5만 6000t의 쌀을 증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갯벌 등 강 주변에 32.5km²에 달하는 새로운 농경지(간척지)를 조성했다.

하지만 35년이 흐른 지금 예초 하구둑 건설의 배경이 된 식량 증산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쌀 과잉생산이 해마다 반복돼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남아도는 쌀마저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수질 문제 또한 심각한 상태다. 하구둑 건설로 영산강이 막히면서 담수와 해수가 섞이지 못하고 고인데다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했던 승촌보, 죽산보로 인해 영산강이 죽은 강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영산강하구둑을 개방하자는 목소리는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우선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는 홍수통제 목적으로 드물게 이뤄지는 영산강하구둑 수문 개방을 적극적으로 해 강물과 바닷물이 수시로 만나게 하자는 것이다. 전남의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영산강하구둑을 허물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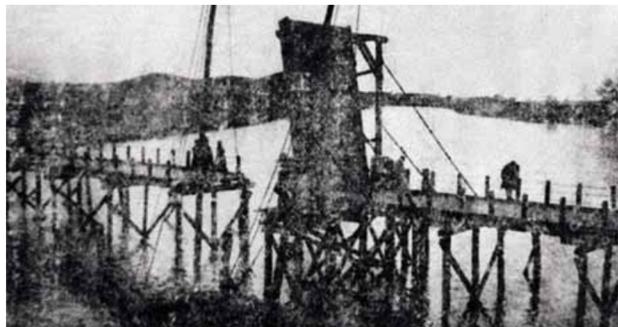
10여년 전부터 영산강하구둑 개방을 주장해온 전남대 전승수 교수(지구환경부·퇴직학 전공)는 바닷물 유입이 가장 현실적인 수질 문제 해결 열쇠라고 보고 있다.

전 교수는 “하구둑 수문을 항상 열어 놓고 바닷물과 민물이 수시로 교차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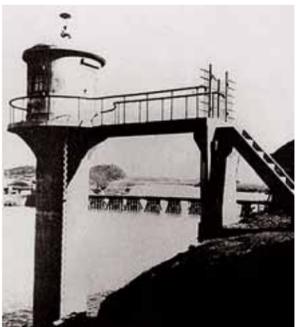
하면 수질 오염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면서 “농가 피해 등을 고려한 뒤 연중 수문을 상시 개방하다가 해일 예보 등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만 닫히도록 하구둑 구조를 바꿔야하고, 미래를 위해선 하구둑 자체를 허물도록 장기적으로 연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낙동강하구둑 수문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 기수역(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공간) 회복 협의체를 꾸려 단계적으로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도록 해 낙동강을 살려낸 뒤 강을 바탕으로 도시를 발전시켜나가는 게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김도형 사무처장(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은 “영산강이 맑고 깨끗해져야 전남도 잘 살 수 있다”면서 “막힘 없이 바다로 흘러가는 강, 강에서 나오는 온갖 해산물, 시원하고 맑은 강바람, 강변에 늘어난 식당, 숙박업소, 유원지, 수많은 관광객... 이 모든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일제강점기 배와 사람들의 왕래를 도우려고 영산포에 설치된 개폐식 목교(왼쪽)는 사라졌지만 영산포 등대는 여전히 보존돼 있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